

### 단원 개관

이 단원은 문학 수용 능력과 감상 태도를 기르기 위하여 설정하였다. 시를 읽고 시에서 말하는 이의 마음을 생각한 뒤에 시에서 말하는 이가 겪은 일을 일기로 써 보는 활동에 중점을 두었다. 또 시에서 말하는 이가 겪은 일을 시로 바꾸어 표현하여 보게 함으로써 문화 향유 역량과 의사소통 역량을 기르게 하였다. 이 단원에서는 학생들이 일상에서 충분히 경험했을 만한 내용을 나타낸 시 「번데기와 달팽이」, 「흔들리는 마음」을 제재로 선정하였다.

### 학습 목표

시에서 말하는 이가 겪은 일을 글로 쓸 수 있다.

### 성취 기준

영역	성취 기준
쓰기	[4국03-04] 읽는 이를 고려하며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글을 쓴다. [4국03-05] 쓰기에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글을 적극적으로 나누는 태도를 지닌다.
문학	[4국05-04] 작품을 듣거나 읽거나 보고 떠오른 느낌과 생각을 다양하게 표현한다. [4국05-05] 재미나 감동을 느끼며 작품을 즐겨 감상하는 태도를 지닌다.

### 교수·학습 내용

수업 과정		교수·학습 내용
도입	생각 열기	시를 읽고 말하는 이가 무엇을 하는지 떠올려 보기
전개	학습 활동 1	「번데기와 달팽이」와 「흔들리는 마음」을 읽고 물음에 답하기
	학습 활동 2	시에서 말하는 이가 겪은 일 쓰기
	학습 활동 3	낱말의 뜻을 읽고 빈칸에 들어갈 낱말 쓰기
	학습 활동 4	시에서 말하는 이가 겪은 일 일기로 쓰기
	학습 활동 5	글을 읽고 '내가 겪은 일' 시로 쓰기
정리	배움 다지기	시에서 말하는 이가 겪은 일 파악해 글로 쓰기

### 핵심 역량

- 문화 향유 역량** 국어로 형성·계승되는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그 아름다움과 가치를 내면화하여 수준 높은 문화를 향유·생산하는 능력이다.
- 의사소통 역량** 음성 언어, 문자 언어, 기호와 매체 등을 활용하여 생각과 느낌, 경험을 표현하거나 이해하면서 의미를 구성하고 자아와 타인, 세계의 관계를 점검·조정하는 능력이다.

### 지도상의 유의점

- 같은 주제를 시나 글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활동을 하는 단원이므로 일상의 경험이 잘 드러난 시를 활용하여 지도한다.
- 일기를 쓸 때도 시를 활용하여 쓸 수 있다는 점을 지도하여 자신이 겪은 일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한다.

### 도입

#### ▶ 시를 읽고 말하는 이가 무엇을 하는지 떠올려 보기

- 시를 읽고 말하는 이가 무엇을 하는지 떠올려 본다.
  - 자기 엄마가 최고라고 서로 자랑하다가 가위바위보로 정하자고 하며 가위바위보를 하고 있다.

### 전개

#### 1 「번데기와 달팽이」와 「흔들리는 마음」을 읽고 물음에 답하기

- “빨리 내 집 돌려줘.”라고 말한 뜻은 무엇일까요?
  - 다시 이불을 덮고 누워 있고 싶다는 뜻이다.
- 아빠가 문을 열고 들어온 까닭은 무엇일까요?
  - 나를 혼내시고 마음이 아파서 잘 자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이다.

#### 2 시에서 말하는 이가 겪은 일 쓰기

- 「번데기와 달팽이」에서 말하는 이가 겪은 일을 써 본다.
  - 아침마다 일어나기 싫은 나를 엄마가 이불을 뺏으며 깨우신다.
- 「흔들리는 마음」에서 말하는 이가 겪은 일을 써 본다.
  - 공부를 않고 놀기만 한다고 아버지께 혼났다.



### Tip

· 학생들에게 시에서 말하는 이가 겪은 것과 비슷한 경험을 한 사례를 충분히 말해 보는 기회를 주어 학습 흥미도를 높인다.

#### 3 낱말의 뜻을 읽고 빈칸에 들어갈 낱말 쓰기

- 보기에 제시된 낱말의 뜻을 익힌다.
- 빈칸에 알맞은 낱말을 찾아 써 본다.
  - 바닷가에서 조개 껍데기를 주워 목걸이를 만들었다.
  - 굴 껍질을 삶은 물을 마시면 감기를 예방할 수 있다.

#### 4 시에서 말하는 이가 겪은 일 일기로 쓰기

- 「번데기와 달팽이」와 「흔들리는 마음」 중에서 하나를 골라 시에서 말하는 이가 겪은 일을 일기로 써 본다.
  - 「번데기와 달팽이」  
오늘 아침에도 일어나기 싫어서 이불을 푹푹 말고 자고 있었다. 엄마는 나를 깨우려고 몇 번이나 부르셨지만 꿈쩍하지 않았다. 엄마가 드디어 내 방으로 오셔서 이불을 힘껏 잡아당기셨다.

“어서 일어나 껍데기를 훌훌 벗고 나비가 되어야지.”  
“나 번데기 아니야. 달팽이란 말이야. 빨리 내 집 돌려줘.”  
난 달팽이처럼 계속 이불 속에 있고 싶었다.

#### - 「흔들리는 마음」

아이들이랑 축구를 하고 집에 오니, 아버지께서 퇴근해서 일찍 집에 와 계셨다. 아버지께서는 공부는 안 하고 놀기만 한다고 꾸중을 하셨다. 숙제도 다 하고 1시간 정도밖에 놀지 않았는데 억울했다. 속상해서 일찍 자려고 누웠더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. 아버지께서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것 같아 자는 척하였다. 아버지께서는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는 슬그머니 나가셨다. 아버지가 미웠던 마음이 흔들렸다.

#### 5 글을 읽고 '내가 겪은 일' 시로 쓰기

- 글을 읽고 '내가 겪은 일' 시로 나타내어 본다.

운동회

운동회 날 첫 순서 달리기 경기.	결과는 4등 꼴찌나 마찬가지.
올해는 꼭 일등을 해서 공책을 받아야지.	힘이 쑥 빠진다. 엄마 얼굴 보면서 천천히 뛰어갈 걸.

선생님께서 올린 깃발을 보고는 있는 힘을 다해 달렸다.

### 정리 및 평가

#### 1 정리하기

- 시에서 말하는 이가 겪은 일 파악해 글로 써 본다.

#### 2 평가하기

- 시에서 말하는 이가 겪은 일을 파악해 글로 썼나요?

평가 기준	
상	시에서 말하는 이가 겪은 일과 느낌을 글로 표현할 수 있다.
중	시에서 말하는 이가 겪은 일을 파악해 글로 쓸 수 있다.
하	시에서 말하는 이가 겪은 일을 일부 파악할 수 있다